

“장병 기본권 최대 보장·병영생활 실질적 개선 노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동부전선 야전부대 방역 현장 점검
“건제 단위 휴가 효과적 시행” 당부
병영식당에선 “급식에 만전” 강조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반 병영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3일 동부전선에 위치한 육군의 한 기계화보병여단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의 야전부대 현장 방문은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 종합대책이 야전부대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박 차관은 종합대책 중 하나인 건제 단위 휴가 시행 상황을 부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현행작전과 방역관리능력을 벗



13일 박재민(왼쪽) 국방부 차관이 동부전선에 위치한 육군의 한 기계화보병여단을 방문해 격리장병용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박 차관은 장병 급식 시설을 확인한 뒤 부대 관계자로부터 급식운영 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방부 제공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제 단위 휴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휴가 복귀 장병들이 격리 기간 사용하게 될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시설의 상태, 지원물자 구비 여부 등 생활 여건 전반을 직접 확인했다.

최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실급식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박 차관은 병영식당을 방문해 조리병과 급양 관계관들을 격려하면서 “격리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의 급식 지원에 지휘관과 간부들이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관리가 취약한 주말과 휴일에 철저한 배식관리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격리장병 급식 여건 보장을 위해 간부 입회하 정량·균형 배식, 군마트 이용여건 보장, 증식 및 비상부식 적극 활용, 돼지고기·닭고기 등 선호 메뉴 10% 증량, 주말 브런치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반 병영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채무 기자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동 주최로 열린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및 운용 방향 세미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이상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오른쪽 셋째부터 왼쪽 방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애국선열 공헌에 감사하며... 보훈처, 8월 말까지 ‘보훈콘텐츠 공모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2021년 제25회 보훈콘텐츠 공모전’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 6·25전쟁 등 호국, 민주화 운동 등의 분야로 나뉘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소방·경찰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공익수호 분야가 신설됐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각 분야에 맞춰 영상, 디자인, 문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상은 3분 이내의 자유 형식(1인 방송·브이로그·영화·애니메이션)의 동영상, 디자인은 SNS 웹툰·카드뉴스·포스터, 문예는 시(추모 헌시)·수필(보훈 수기)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단체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보훈콘텐츠.kr)에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거나 운영사무국(1666-3092)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훈처는 초·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심사한 뒤 총 83점을 선정, 오는 11월 시상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방향·작전 개념 논의

KODEF - 방진회, 세미나 개최
민·관·군 전문가 90여 명 참석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발 방향과 작전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세미나’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열린 세미나에는 민·관·군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KODEF 현인택 공동대표와 방진회 이상용 상근부회장의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강은호 방위사업청장·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의 축사로 시작

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무인이동체 사업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유·무인 협업체계 개발 방향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동향 △비대칭 환경에서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오션(OCEAN) 2020 연합훈련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작전개념 등이 제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오장환 수석연구원은 첫 국산 전투기인 KF-21과 통합 운영되는 저피탐 무인기 개발을 위한 국내 연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안을 소개한 뒤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핵심기술연구, 기술시범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시스템 박도현 해양연구소장은 함정 전투체계와 해양무인체계 통합 방안을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해양무인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레오나르도 최종호 전무는 전술 회전의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지·해상 작전개념과 무인시스템 및 다영역 데이터 통합을 위한 범유럽 프로젝트인 오션 2020을 소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현 공동대표는 “현재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힘을 한군데로 모은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상근부회장은 “우리 군도 향후 무인 전투체계가 주도할 전장의 양상에 대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법무법인 YK

군 편사 출신 변호사 **김현수**

주요 업무분야

- 군형사(군사경찰, 군검찰, 군법원)
- 군인사(징계, 원부심, 보직해임, 인사소청)
- 군행정소송 · 국가소송

주요 경력

- 육군사법원 재판3부 군판사
- 육군본부 법무실 전략군수법제정과(국가계약, 군수사업 관련 법률자문)
- 육군 제1군단 법무부 검찰부장(군경사)
- 육군 제1군단 법무부 직전법정교(국가배상, 징계업무 담당)
-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위원회 위원
- 육군 제50사단 법무부 법무참모(법무실 총괄)
- 육군 제1군단 법무부 직전법정교(국가배상, 징계업무 담당)

1668.0232 | 010.9754.4759

KakaoTalk
대리스토어입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안산 전국 상설가능